

충청북도 및 청주시 외국인 분포와 인구 특성 연구

신원정* · 김종연**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Foreigners in Chungbuk Province and Cheongju City

Won Jeong Shin* · Jong Yeon Kim**

요약 :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외국인 성별, 국적별, 체류 자격별 분포와 연령별 인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충청북도 외국인 인구 비율은 약 2.2%이며 충청북도 내에서도 시군별로 차이가 크다. 외국인의 상당수는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에 거주하며, 음성군과 진천군은 전체 인구의 8.93%, 6.38%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체류 자격, 연령별 구조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산업 지역에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청주시 봉명동 지역에는 구소련 및 인접 국가 출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이러한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해서 교육적, 문화적인 지원 및 한국인들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등록외국인, 다문화, 카릴문자권, 외국인거리

Abstract : With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exceeding 1 million, the need for policy responses that matc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living in the region is being emphasized.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of foreigners by gender, nationality, and status of residence,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by age in Chungcheongbuk-do and Cheongju-si were analyzed using official statistical data for June 2020 and June 2021.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in Chungcheongbuk-do is about 2.2%. Even within Chungcheongbuk-do,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cities and counties, and a significant number of foreigners live in Cheongju, Eumseong-gun, Jincheon-gun, and Chungju-si. In Eumseong-gun and Jincheon-gun, foreigners account for 8.93% and 6.38% of the total population. There are large regional differences in status of residence and structure by age, and the proportion of workers is high in industrial areas, forming a group residential area. In particular, in the Bongmyeong-dong area of Cheongju-si, foreigner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d neighboring countries reside intensively. It seems that various effor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re needed for educational and cultural support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Koreans for these collective residential areas.

Key Words : Registered foreigners, Multiculturalism, Cyrillic, Foreigner street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 Fellow,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hjles2995@naver.com)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erraic@cbnu.ac.kr)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9년 127만 명에 달하던 우리나라 거주 등록 외국인 은 COVID-19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에도 109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1). 이들 외국인은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 분야의 경우 한국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채우고 있다. 상당수의 등록 외국인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 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이들의 노동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소 도시의 기업들이나 농촌의 경우 부족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취업과 관련된 체류 자격(문화예술, 기술연수, 일반연수, 기술지도, 전문지도,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방문 취업, 관광 취업)을 지닌 등록 외국인 수와 각 지역의 취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취업자 수 대비 약 2.1%의 비율이 나타나며, 충남 3.3%, 경기 3.1%, 충북 2.6%, 경북 2.3% 등으로 경기와 충청, 경북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충북 음성군이 경우 취업자 수 대비 취업 관련 체류 자격인 외국인이 11.3%에 달하며 진천군 역시 7.3%의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약 39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외국인까지 감안할 경우 이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 가운데 인종, 민족, 종교 등 이질적 배경을 가진 인구 구성비가 5%를 상회할 경우, 양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외적 구성체를 갖춰지게 된다(김진희, 2019). 이에 따르면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일부 지역과 집중적인 외국인 거주가 나타나는 중소 도시의 지역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특성과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공간 통계적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내부에서의 인종적·민족적 다양성 변화

측면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이자원·김혜진, 2017). 외국인들의 성별, 연령별 특징 즉, 인구 집단의 특성은 각 지역마다 다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승호, 2016).

이에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관련된 지역 사례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서울시 대림동, 자양동, 가리봉동, 동대문 몽골타운 등 서울시 내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과(박세훈, 2010; 방성훈·김수현, 2012; 이영민 등, 2012; 이영민·이중희, 2013; 정수열·이정현, 2014; 이정현·정수열, 2015), 안산시 원곡동, 인천 차이나타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선화, 2008; 한정우, 2008). 이들은 주로 외국인 거주지의 형성 및 변화 과정, 이주배경, 지역성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경북 영천시에서는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형성과정에 대해 분석되었고, 부산시를 대상으로는 외국인들의 거주 공간 변화와 산업종사자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나타나는 커뮤니티에 대해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조현미, 2006; 박구택, 2018; 배주현·김감영, 2019).

충청북도 지역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약 3만 5천 여 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의 외국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충북 전체 등록 외국인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충북 지역의 외국인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분 외국인 인구 집단의 특징은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파악되었다. 중소 도시나 농촌 지역 단위에서의 외국인 현황이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연구 등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등록 외국인과 관련한 분석은 주로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어,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의 지역 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COVID-19의 지역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 및 행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의 전달 및 준수를 위한 지도, 확진자 발생시 검사와 격리, 치료를 위한 기초적 자료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방역용 마스크가 부족 상황에서 처음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방역 문제는 이후 일부 종교 집단, 직장 내 감염 등 집단 감염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방역 지침을 전파하고, 백신을 포함한 적절한 방역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특성과 그에 적합한 대책 마련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주자의 공간은 국적과 체류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역시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야 한다(이용균·이현옥, 2012). 이러한 요인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각 시도, 청주시의 경우에도 구 단위 뿐만 아니라 동 단위까지의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중심지가 형성되고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민족과 국가별로 다른 차이가 나타나므로, 관련 정책 역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손승호,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북 각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종합 서비스 제공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충청북도의 각 시군별 외국인 인구의 특성과 새로운 외국인 거주 지역의 형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마련, 교육 기회 제공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 자료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자료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통계를 이용하였다. 등록 외국인의 시·군·구별 국적 통계는 2008년부터 제공되었는데(이자원·김혜진, 2017),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020년 6월 자료를 활용하고 2021년 6월 통계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청주시의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지역 특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지역 개발 관련자들 및 지방

자치단체 관계자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면접대상자는 2인의 청주시 의원과 조합 관계자, 다문화위원회 위원,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등이었다. 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청주시의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지역 특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지역 개발 관련자들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주자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 거주 양식, 정확한 체류의 목적, 직업, 동거 가족의 여부 등은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노지현·구동회, 2016) 통계 자료 분석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대체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초 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거주 외국인들과 직접적인 인터뷰 등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국인과의 심층 면접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II. 국내 및 충청북도 외국인 현황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외국 국적 동포의 방문취업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외국 노동력의 유입이 확대되었다(노지현·구동회, 2016).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 외국인의 수는 결혼과 관련된 우리나라 및 관계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른 노동력 수요,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2021년 6월 현재 109만 7,247명으로, 2020년 6월의 122만 228명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260,819명(23.8%), 베트남 179,896명(16.4%), 중국 171,182명(15.6%), 우즈베키스탄 44,775명(4.1%), 필리핀 38,770명(3.5%) 등에 달하고 있다(표 1). COVID-19의 발생이 심각하지 않던 2019년 12월에는 127만 1,807인이었으며, 이에 비해 현재 약 17만 4,560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물론 감소한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기는 하나 향후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충청북도 내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2020년 6월 30일)

계(명)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39,145	6,836	5,788	4,376	3,457	2,586	1,962	2,016	1,733	1,419	1,099	1,057
비율(%)	17.5	14.8	11.8	8.9	6.6	5.0	5.2	4.4	3.6	2.81	2.7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a.

표 2. 충청북도 시군별 등록 외국인 수와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2021년 6월)

지역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전체 등록 외국인 수(명)	12,111	4,682	1,472	511	650	750	821	5,407	865	8,239	202
외국인비율(%)	1.43	2.23	1.11	1.59	1.29	1.62	2.25	6.38	2.32	8.93	0.71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1; 통계청.

한편 타이완 출신인(17,949명)들은 분석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된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한 화교들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중국계 한국인이나 중국 국적자들과 구분된다. 실제 이들 화교 2세, 3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우리 국적법에 따라서 중화민국국적을 보유한 것일 뿐 외국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이자원 · 김혜진, 2017) 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021년 6월 현재 충북 지역에는 35,710명(39,145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의 3.3%이며, 충청북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2.2%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모적인 면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 분포(표 1)를 보면 전국적인 외국인 구성 비율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충북의 외국인 집단 가운데 베트남 인구 비율(17.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국적인 비율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인의 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계 한국인의 비율(14.8%)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비율만큼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타이인들이 채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에 논의하게 될 청주시 일부 지역의 카릴문자 사용 집단 또는 구조련 및 주변 국가 출신 외국인의 집중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북도 내의 시군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표 2). 특히 청주시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2021년 6월 30일 현재 12,111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으며 이는 충북 전체

등록 외국인의 34%에 달한다. 이외에 음성군 8,239명(23.5%), 진천군 5,407명(15.1%), 충주시 4,682명(13.1%)이 거주하고 있다. 이를 주민등록 인구 대비로 본다면 지역적인 차이는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음성군은 전체 인구의 8.93%, 진천군은 6.38%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읍면단위로 살펴보면 음성군 삼성면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20.9%, 대소면 14.9%, 생극면 12.6%, 금양읍은 9.8%의 외국인 인구 비율을 보인다. 진천군에서도 이월면 17.8%, 문백면 10.2%의 외국인 인구 비율이 나타나 읍·면별로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COVID-19 확산 이전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 구조의 특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한편 외국인 유입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6월 기준 체류 자격에 따른 비율을 살펴 보았다(그림 1). 각 체류 자격의 비율은 유입되는 외국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체류 자격과는 무관하게 영세 공장, 서비스 업체 등에서 각종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임시 취업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의 시군별 외국인 체류 자격 비율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E9(비전문취업)과 F6(결혼이민)이다. 비전문취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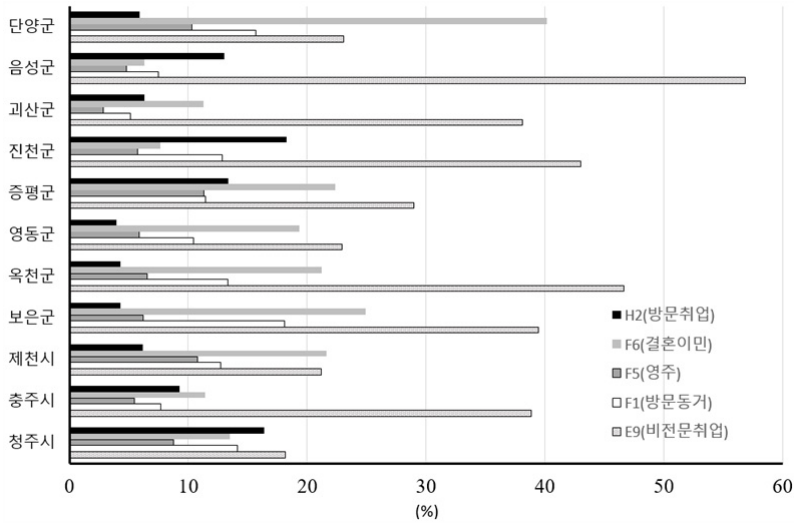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북도 시군별 외국인의 체류 자격 비율(2020년 6월)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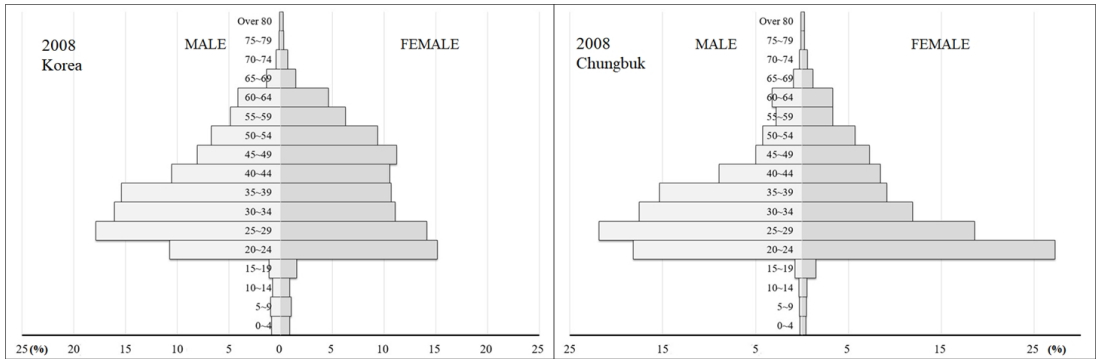
냉동·냉장 창고업, 재생 재료 수집업, 관광 호텔업, 축산업이 주를 이루며, 외국 국적 동포들은 음식점업, 청소 서비스, 개인간병 서비스, 자동차 수집업, 육탕업 등을 포함한다. 결혼이민에는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 혼인 단절 등이 포함된다. 또한 F1(방문 동거)에는 친척 방문 및 가족 동거, 피부양자, 가사, 결혼 이민자의 부모와 가족, 결혼 이민자의 국내 자녀 등이 포함되는 분류이며, F5(영주)는 5년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국민의 자녀, 방문 취업으로 4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 화교 등이 포함된다. H2(방문 취업)은 연고자, 유학생의 가족이나 배우자, 과거 취업 후 자진 출국했던 사람, 각종 시험 등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 중 비전문 취업은 중소 제조업 기업의 취업 비자로, 단양군과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충청북도 내 시군 단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음성군에서는 56.9%(5,228명), 옥천군에서는 46.7%(327명), 진천군에서는 43%(2,54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전체에서도 35.5%의 외국인이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다음으로 방문 취업의 경우 비교적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로, 산업 연수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포함된다. 충청북도 외국인의 13.6%에 달하며 청주시에 2,179명, 진천군 1,082명, 음성군 1,199명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체류자격 집단은 결혼 이민(11.7%)으로,

단양군과 제천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괴산군, 증평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주시에서는 비전문 취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다. 또한 방문 동거 자격은 충북 전체에서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결혼 이민자의 가족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계 가족들이 해당된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는 1,881명, 진천군 761명, 음성군 686명이 방문 동거 자격으로 거주 중이다. 마지막으로 영주 자격이 있다.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 가운데 장기 체류에 속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전체 2,663명중 1,168명이 청주시에 거주 중이다. 이밖에 유학 역시 전체 체류자의 6.2%인 2,439명중 1,672명이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하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청주시 외국인 체류 자격 중 12.6%를 차지하며, 4번째로 규모가 큰 체류 자격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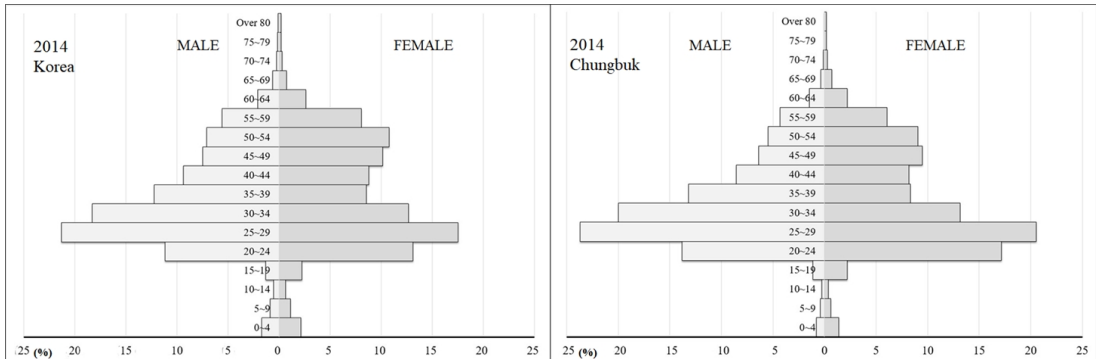
III. 충청북도 외국인의 인구 집단과 분포 특성

충청북도 외국인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별 인구 구조 자료가 있는 2008년, 2014년, 2020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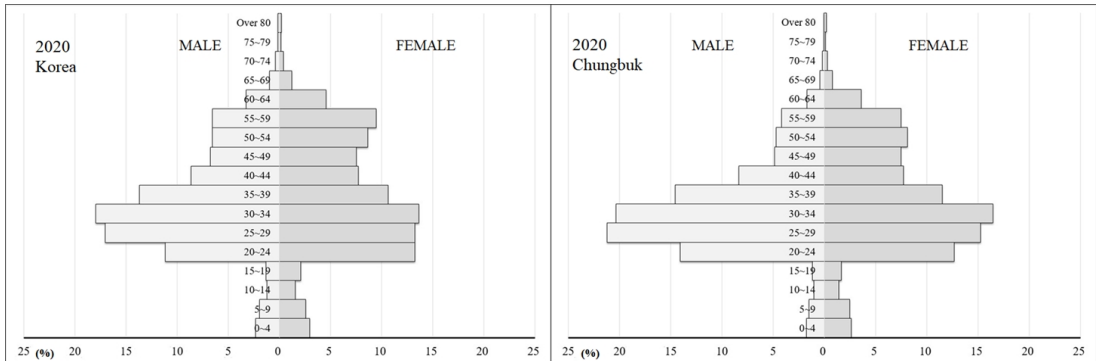
(a) 2008년 전국 등록 외국인 인구 피라미드

(b) 2008년 충북 등록 외국인 인구 피라미드



(c) 2014년 전국 등록 외국인 인구 피라미드

(d) 2014년 충북 등록 외국인 인구 피라미드



(e) 2020년 전국 등록 외국인 인구 피라미드

(f) 2020년 충북 등록 외국인 인구 피라미드

그림 2. 전국 및 충북 등록 외국인 인구피라미드 비교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a; 통계청.

국 및 충청북도 등록 외국인들의 성별, 연령별 구조를 분석하였다(그림 2).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854,007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성이 48만 136인, 여성이 373,871인으로 성비는 128.42였다. 남성 집단 중에서는 25-29세 집단이 17.9%로 가장 큰 비율을 지니고 있었다. 뒤이어 30-34세가 16.1%, 35-39세가 15.4%로 20대, 30대

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24세가 15.1%, 25-29세가 14.1%로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가 전체 집단의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충청북도에는 22,700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었으며, 남성이 13,648명, 여성이 9,052명이었고 성비는 150.7 이었다. 연령 집단으로는 25-29세의 남성이 21.9%, 20-24세

181.1% 등 20대와 30대가 7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은 20-24세 집단이 27.2%에 달하고 25-29세가 18.6%로 20대와 30대가 66.9%에 달했다. 이를 전국적 단위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매우 높고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전국적인 분포에서는 40대 이상까지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데 반해 충북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 전국 패턴과는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2014년 12월 현재 전국에는 1,091,531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성 628,279명, 여성 463,252명으로 성비는 135.6이었다. 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남성 연령대는 25~29세 집단이며 133,900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34세 11,4872명(18.3%), 35세~40세 76,69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25~29세 집단이 81,344명으로 17.6%를 차지하였으며, 20~24세 60,745명(13.1%), 30~34세 58,650명(12.7%)으로 나타났다. 45~49세, 59~54세 집단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충청북도에는 30,70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성 18,982명, 여성 11,718명으로 성비는 162였다. 남성의 경우 25~29세가 4,502명(23.7%), 30~34세 3,794명(20%), 20~24세 2,618명(13.8%), 35~39세 2,500명(13.2%)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향성은 전국의 외국인 구성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도 25~29세가 2,406명(20.5%), 20~24세 2,009명(17.1%), 30~34세 1,542명(13.2%)으로 나타나 전국적 경향과 유사하였으며, 45~49세, 50~54세 집단 역시 9%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대의 경우 주로 청장년층 노동 인구 또는 혼인을 통한 입국자들로 보이며, 4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노동 시장에 유입되거나, 연쇄 이주로 유입된 외국인 중장년 여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충북 지역의 경우 20대 여성의 비율이 전국에 비하여 약 7% 정도 높으며, 40~50대 인구의 여성 비율은 전국 대비 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40~50대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비해 적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쇄 이주는 결혼 이민자들의 여성 친족들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방문 취업 형태로 단순 노동을

시작한 후, 정식 취업 비자를 얻어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해 40~50대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지현·구동희, 2016).

이에 비해 2020년 6월에는 전국적으로 1,219,113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 중이었다. 그 중 남성 699,274명 여성 519,839명으로 성비는 135였으며 2014년에 비하여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 외국인 수는 2014년에 비하여 128,697명 증가(11.8%)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증감의 변동이 있다. 남성의 연령 비율을 보면 30~34세가 125,739명(18%), 25~29세 119,207명(17.1%), 35~39세 95,672명(13.7%)으로 나타났다. 25~29세 집단의 절대 수와 비율은 모두 감소한 반면, 30~34세 집단과 35~40세 집단의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다만 30~34세 집단은 비율은 감소하였고, 35~39세 집단은 비율은 증가하였다. 그 결과 30대 전체 인구는 58,077명 순증하였다. 즉 국내 등록 외국인 남성 집단은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기간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여성은 20~24세가 8,207명 증가한데 비하여 25~29세는 124,22명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30대가 27,964명 증가하였고, 56~64세 집단에서 23,549명 증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인구 집단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15세 이하 유소년층의 인구 증가이다. 0~15세 집단은 2014년 대비 37,357명 증가하였고, 15~19세 집단은 1,552명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유치원(유아학교) 및 각급 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등록 외국인은 63,681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들 아동들은 중도 입국 자녀들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로, 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진희, 2019).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 가운데 공교육 제도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30%에 달하고, 언어적인 장벽, 경제적인 결핍, 가정불화로 인한 문제 등은 공교육 진입의 장애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희, 2019).

또한 2020년 6월 현재 충청북도에는 39,145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남성 24,465명, 여성 14,680명이며 성비는 166.7로 2014년에 비하여 높아졌다. 충북의 등록 외국인 수는 2014년에 비해 27.5% 증가한 것으로 전국적인 증가율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였다. 전체적으로 45~49세 연령층과 75~7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0~14세와

30대 인구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증가율로만 본다면 60~75세 사이의 증가율도 크지만 인구수가 많지 않아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별로 보면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30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IV. 청주시 등록 외국인 현황과 특징

1. 행정구별 외국인 현황

청주시는 상당, 서원, 청원, 흥덕 등 4개의 행정구와 각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원래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주에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모두 혼재하게 되었다. 상당구는 청주의 전통적인 중심지를 포함하며 동남부의 용암동 일대,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이 포함된다. 2020년 6월 현재 외국인 주민 비율은 0.60%로 낮은 편이며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용암동(용암1동 0.44%, 용암2동 0.42%), 금천동(0.42%)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특히 더 낮은 편이다.

서원구는 1980년대 이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사직동, 사창동, 모충동 일대를 비롯하여 90년대 이후 개발이 이뤄진 산남, 분평, 수곡동이 포함된다. 서원구는 인구의 1.44%가 외국인이며, 이들의 상당수는 사창동, 성화동, 개신동, 죽림동에 거주하고 있다. 사창동의 경우 2020년 6월 기준 전체 주민의 5.86%인 941명이 외국인이며, 2021년 6월에는 789명으로 감소하였다. 농공단지 가 있는 현도면은 2020년 6월에는 외국인이 142명(3.98%)이었으나, 2021년 6월에는 118명으로 감소하였다. 남이면의 경우 235명(2.24%)이며, 외국인 인구의 절대 수로는 성화·개신·죽림동이 631명에 달하지만, 전체 인구가 4만 6천명이상으로 비율로 보면 1.74%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5,170명)이 등록되어있는 흥덕구는 청주의 서쪽 지역으로 청주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공업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 택지 개발이 이뤄진 봉명동, 복대동 등이 있으며, 90년대 이후 택지 개발이 이뤄진 가경동 등의 신흥 주거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율은 1.9%이지만,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봉명1동의 외국인 비율은 8.79%, 복대2동은 6.24%, 강내면은 3.43%이며, 특히 복대2동의 외국인 인구는 1,024명, 봉명1동은 842명에 달한다. 이 지역은 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이 분포하는 지역이며, 일부 아파트 단지가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다(봉명주공 1단지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중이며, 관련 사항은 이후 상론된다). 봉명1동은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이 30.9%, 복대2동은 48.4%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청원구는 청주시의 북쪽 지역으로 울량동, 사천동, 내덕동, 우암동과 오창읍, 내수읍, 북이면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인구 비율은 평균 2.08%(4,121명)이지만, 북이면은 10.17%, 내덕2동은 7.29%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 외국인 인구수는 오창읍이 1,363명이며 내덕2동이 924명에 달한다.

2.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

청주시의 이러한 외국인 인구 분포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현재 체류 자격별 분류를 분석하였다(그림 3). 2021년의 자료는 COVID-19 확산에 따른 유학생 입국 제한 등이 반영되었으므로 실제 분포 특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2020년 분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주시의 각 구마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체류 자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당구는 결혼 이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서원구는 유학, 청원구는 비전문 취업, 흥덕구는 방문 취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서원구에는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이 위치하여, 유학생들이 대학 기숙사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영민·김수정, 2017).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인구 분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원구에는 청주대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위치하며, 흥덕구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이 위치하는데, 이것이 청주시에 외국인 유학생 인구가 나타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초기 이주민들의 거주지는 선택적이기보다는 일차리나 학교 등 이주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나 효용이 극대화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학생 인구의 경우 초기 이주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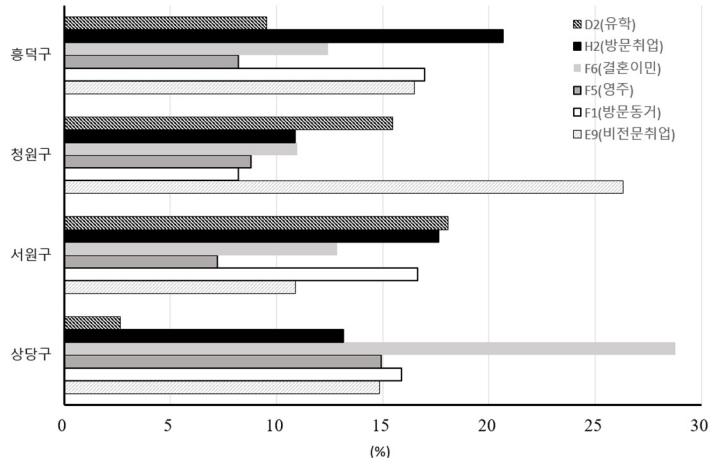


그림 3. 2020년 6월 청주시 구별 외국인 주민의 체류 자격별 비율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b.

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자원·김혜진, 2017). 이들이 졸업 이후 정착하는 유형 등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청주 시내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들은 도시 내에 분산되어 있으며, 한국인 가정에 편입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는 관계로 집단적인 거주 지역 특성이나 경관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도시의 전체 인구수가 많아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도드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이 밀집하는 곳을 중심으로 결혼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민·김수정, 2017). 하지만 청주시 내의 실제 소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도시 내부 여러 지역의 실소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택 분포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구조

외국인들의 성별, 연령별 구조를 살펴보면 각 구별로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4). 상당구의 경우 남성에서는 30~34세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율이 낮아진다. 20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여성 역시 30~34세 비율

이 가장 크게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유형이 나타나지만 50대에서 다시 비율이 증가한다. 이는 2014년과 2020년에 드러나는 외국인 여성 인구 비율의 특성으로, 결혼 이민자의 등거 가족 유입 등으로 이해된다.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 가족 비자가 전체 외국인의 10%에 달하는 것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초기 이주자가 아닌 연쇄 이주에 속하는 집단으로 동일 민족이나 국가 또는 가족의 주거지 주변에 모이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자원·김혜진, 2017). 이들은 결혼 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구별 등록 외국인의 국적에서도 구별 차이는 나타난다(표 3). 상당구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중 베트남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중국인 역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필리핀의 경우도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여성의 체류 자격 가운데 308명이 결혼 이민으로 전체의 45.5%에 달한다. 국민 배우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당구의 외국 출신 여성 배우자는 모두 391명이고, 그중 베트남 출신이 119명, 중국 85명, 필리핀 50명이다. 외국인 국민 배우자 가운데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은 외국인 등록 통계가 아닌 ‘국민의 배우자’ 통계에만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에 의한다면 상당구에서는 결혼 이민에 의한 이민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인을 제외한 다른 국적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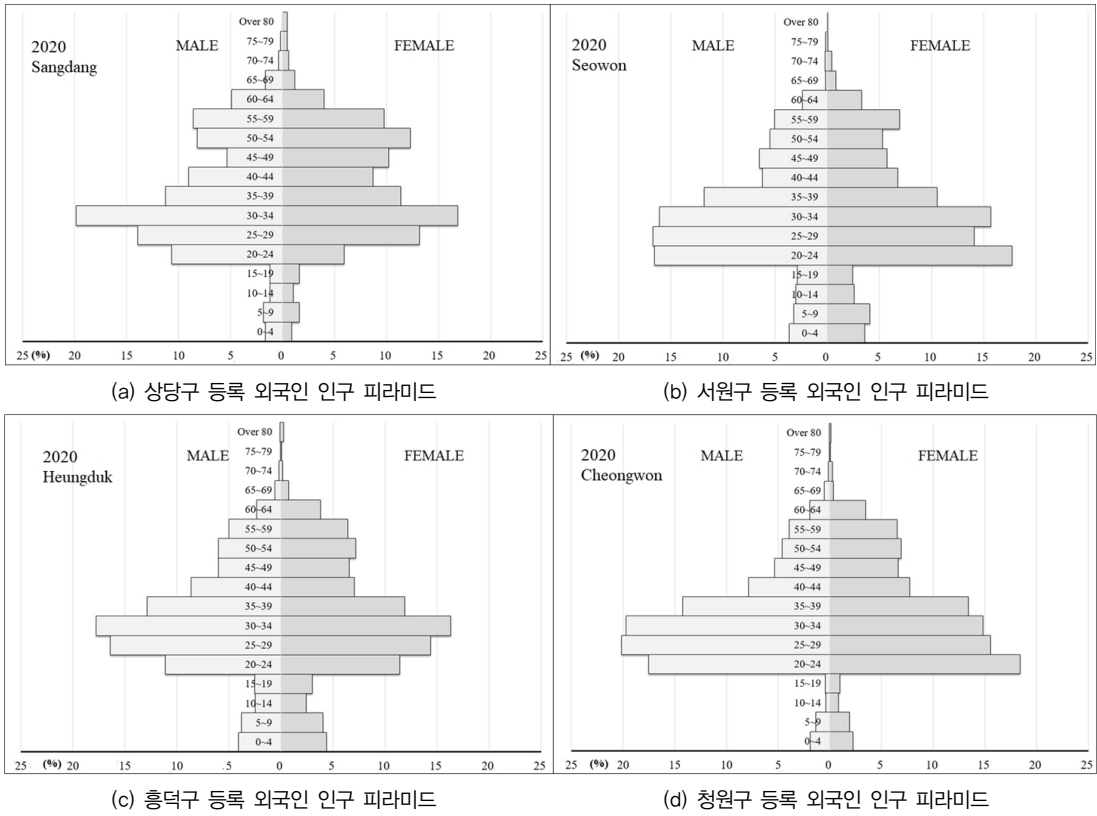


그림 4. 청주시 등록 외국인 인구 피라미드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a.

표 3. 2020년 6월 현재 청주시 구별 등록 외국인의 국적별 분류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몽골	필리핀	네팔	타이	러시아*	카자흐 스탄	캄보 디아	스리 랑가	우크라 이나	
상당구 1,165	인구(명)	235	191	254	26	30	70	35	30	16	3	27	23	5
	비율(%)	20.2	16.4	21.8	2.2	2.6	6.0	3.0	2.6	1.4	0.3	2.3	2.0	0.4
서원구 2,827	인구(명)	333	571	284	393	165	106	86	37	121	97	36	73	67
	비율(%)	11.8	20.2	10.1	14.0	5.8	3.8	3.0	1.3	4.3	3.4	1.3	2.6	2.4
청원구 4,066	인구(명)	689	864	864	192	86	148	212	211	26	16	104	110	4
	비율(%)	17.0	21.3	21.3	4.7	2.1	3.6	5.2	5.2	0.6	0.4	2.6	2.7	0.1
흥덕구 5,259	인구(명)	909	763	593	779	402	241	134	98	193	189	122	63	112
	비율(%)	17.3	14.5	11.3	14.8	7.6	4.6	2.6	1.9	3.7	3.6	2.3	1.2	2.1
계(명)	2166	2389	1995	1390	683	565	467	376	356	305	289	269	188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c; 통계청.

* : 사할린 귀국 동포 제외.

들의 집중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원구는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인이다. 우즈베키스탄인은 중국계 한국인보다 많

은 수를 차지하며,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인의 비율도 눈에 띈다. 또한 청원구에서는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가장 많으며, 네팔인이나 타이인, 스리랑카인의 집중되어

주목된다. 흥덕구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계 중국인이지만 그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인과 중국인이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인, 몽골인, 필리핀인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외에 눈에 띄는 집단은 러시아인, 카자흐스탄인, 우크라이나인, 캄보디아인의 집중이다.

4. 카릴문자권 주민 거주 집중 구역

청주시의 경우 최근 흥덕구 봉명동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카릴 문자(Cyrillic, кириллица) 사용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5). 일부 언론에서는 이곳을 ‘러시아 CIS 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바이러시아, 2019년 1월 24일자). 카릴 문자의 경우 소위 슬라브 문화권과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 국가 그리고 몽골 등에서 문자로 활용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2년 이후 공식 문자로서는 쓰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김보라, 2016), 몽골 역시 카릴문자를 공식적인 문자로 이용하고 있다(유원수, 2016). 이들의 경우 언어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문자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거주지 집결 현상 등은 서울의 중구 광희동 등에서 연구된 바 있으며, 몽골인들의 경우에는 구 소련과의 역사적·사회적 유대 및 카릴문자 사용이라는 점으로 인해 러시아 이주민 집단과의 연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영민·이종희, 2013; 예카테리나 샤프레이 등, 2015; 김수진·양승우, 2017).

봉명동 일대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인으로 이루어진 러시아계(구 소련) 외국인들이 처음 거주를 시작한 시기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2015년에는 172명이 거주하고 있던 것에서 2018년 말에는 898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몽골인들을 포함할 경우 러시아계 또는 카릴문자권 외국인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러시아계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거주 지역도 봉명동과 인접한 사창동 등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V. 청주시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외국인들이 집단 이주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있어 왔다. 이들의 집단 이주지는 주변의 다른 지역 주민과는 다른 언어, 인종, 민족, 국적을 지니는 이주민 집단이 그들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를 도시 내 주거지 분리 현상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주지 분리에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들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데에는 직장과의 거리, 주거비용, 주변 환경,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혜경, 2012).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중소 도시의 경우 다른 변수들도 개입하게 된다. 중소 도시의 경우 중개업자의 선택적 알선, 본국과의 송금 등을 위한 금융 서비스업의 분포, 중소기업의 경우 집단적인 주거지 제공 등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배주현·김감영, 2019), 청주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1. 낮은 주거 비용

청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교통 조건은 양호하되 건물이 노후화되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청주시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은 버스 이용이 유리하면서 빌라 중심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흥덕구 봉명동과 서원구 사창동, 사직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 지역은 청주 도심 및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버스망이 발달해 있으며, 산업단지로 도로 통근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임대료는 2018년 기준 매월 10~15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하였다.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던 봉명주공 1단지의 철거 예정 아파트들 역시 보증금 없이 소액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내는 조건으로 입주하는 외국인이 많았다(충북인뉴스, 2019년 1월 23일자). 인근의 흥덕구 신봉동 주공 아파트



그림 5. 봉명동 일대의 COVID-19 관련 외국어 안내 현수막

의 경우도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일부 세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거주를 위해 저가로 임대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를 기숙사라고 표현하며, 이들은 퇴근 후 동료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외식이나 외출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주거지 선택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주거비용이 고려된다. 그리고 이는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인천이나 김해시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주거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노후 저층 주택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노지현 · 구동희, 2016; 이호상 · 손승호, 2018).

2. 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외국인 집중의 전형적인 장소로 알려진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 유입 초기에 형성된 중국인 집중 주거지 영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부로 확대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정수열 · 이정현, 2014). 대림동의 경우 지하철과의 근접성, 저층 다세대 주택의 밀집 특성이 중요한 입지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주시 봉명동 일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처럼 도시 내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집중되는 데에는 이주자 네트워크를 통한 연쇄 이주도 기여한다(이호상 · 손승호, 2018).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나 생활환경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교 집단이나 동일국적자 또는 동일 언어 사용자들의 대면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거주 지역을 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외국인 취업 형태는 주로 중소 공장 취업이며,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빌라나 아파트를 임대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제공하기도 하며 이 경우 동료끼리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집중의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의 음식을 찾거나 자국민들끼리 어울려 여흥을 즐기기도 하는데(노지현 · 구동희, 2016),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출신 국가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생겨났다. 이후 규모가 확장되면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장소로 성장하는 경우도 생겼다. 또한 과거에는 중소 공장이나 건설 현장들의 업무 종료 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노동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평일 오후나 주말 시간대에 외국인 이주자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거리는 이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과는 소통이 적은 편이며, SNS를 통하여 자국민들끼리 접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의 경우 외국인 거리의 생성까지 발전한 단계는 아니나, 일부 상점들이 존재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한 상업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육 서비스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들은 1차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들면서 노동 현장에 근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며,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6, 그림 7). 그리고 이러한 집중 거주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주의 경우 이 외에도 교육 서비스가 외국인 거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 외국인 자녀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학군에 따라서 학교가 배



그림 6. 봉명동 일대의 외국인 상대 서비스업 및 학교 안내 현수막



그림 7. 봉명동 일대의 외국인 거주 지역의 서비스업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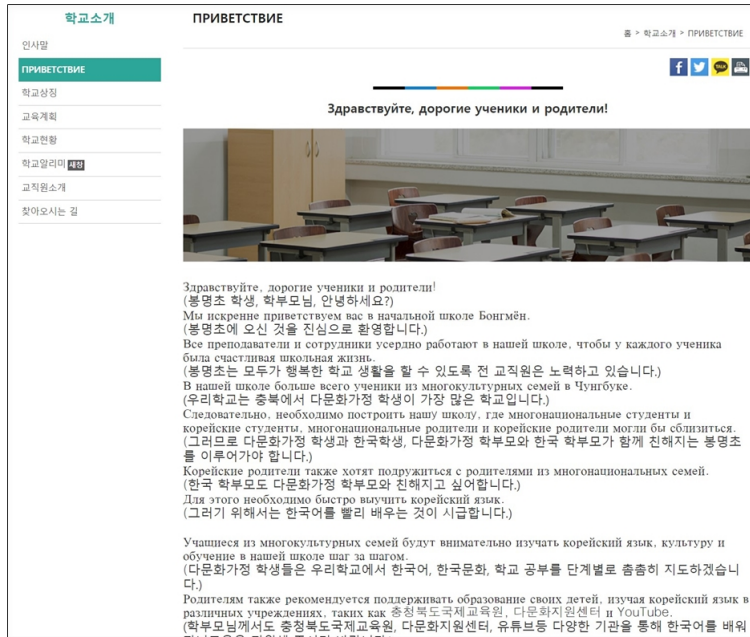


그림 8. 봉명초등학교의 외국인 대상 안내문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명 1동의 초등학교의 경우 총 46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매년 약 70여명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88명의 외국인이 재학 중이었으며, 그중 러시아 25명, 우즈베키스탄 25명, 키르기스스탄 3명, 카자흐스탄 9명, 우크라이나 6명, 그리고 몽골 6명이었다. 2021년에는 입학 예정자 가운데 15명이 다문화 과정 예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입학 예정자의 20%를 상회한다. 해당 지역의 5세~14세 등록 외국인은 164명에 달하며, 2021년 현재 이 학교 전체 재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JB, 2021년 5월 27일자).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카릴 문자 사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8). 특히 다문화 예비 학교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합반되기 전 6개월~1년 가량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CJB, 2021년 5월 27일자). 또한 인근에 위치하는 봉명동 작은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 외국인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 활용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서비스 문제 역시 청주시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VI. 등록 외국인 지원 방향의 분석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100만 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이들과 공존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집단 거주지로 형성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공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차원의 활동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측면이다. 두 집단의 성격이 다른 관계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 역시 다르다. 외국이 노동자 부분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문화 가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된다. 또한 이들 사업의 상당수는 중앙 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가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외국인 지원 사업의 성격은 서로 달라지게 된다.

1)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의 현황과 지원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이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결혼 이민자를 제외한 국내 유입 외국인들 역시 수년간 체류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는 물론 농업 분야까지 우리나라 전반의 노동력 부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 경제의 지원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이영민 · 김수정, 2017). 비전문 취업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3+2년의 단기 체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지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저렴한 임대료이다. 이들의 경우 신축 아파트 보다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빌라나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다. 두 번째로는 교통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 등의 경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이루어진다. 친지 방문이나 다른 지역 방문을 위해서도 대중 교통의 접근성이 강조된다. 세 번째 요인은 연쇄 이주(chain migration)이며 사회 공간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공간적인 관계로 결합하여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와 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며,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외국인 공동체의 중심지는 근로자쉼터, 교회 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특정 지역에 대한 알선과 정보 제공은 이들의 집단적 주거 지역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배주현 · 김감영, 2019).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지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문화 센터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는 주택 알선 및 정비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배주현 · 김감영, 2019),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주택 알선 등이 시행되고 있다(노지현 · 구동희, 2016).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정부의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전국 2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가족 및 자녀의 교육 · 상담, 통 · 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언어발달 지원 사업,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 ·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정체성 · 사회성 ·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기본적으로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김태훈 · 배성훈, 2020),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자원봉사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자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 지원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지역 기반 연구, 지역별 특화 연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김태훈 · 배성훈, 2020).

더욱이 COVID-19의 지역 확산으로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 및 행정 정책의 필요한 상황에서, 역학 조사 시 발생하게 되는 소통 문제 등을 통역하고 방역 지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외국인 지원 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청주시를 사례로

외국인 거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차원을 넘어, 이들의 문화와 사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하기 위한 대중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지역 사회 내의 잠재적 갈등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존과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시 내의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등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 주택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월세 입주자들로 재개발 과정, 도시 재생 사업 등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낮은 임대료를 찾아 이주해 온 사람들이므로, 이들이 이주해 나갈 경우 해당 주택들은 빈집으로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공간의 활용 방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 거주자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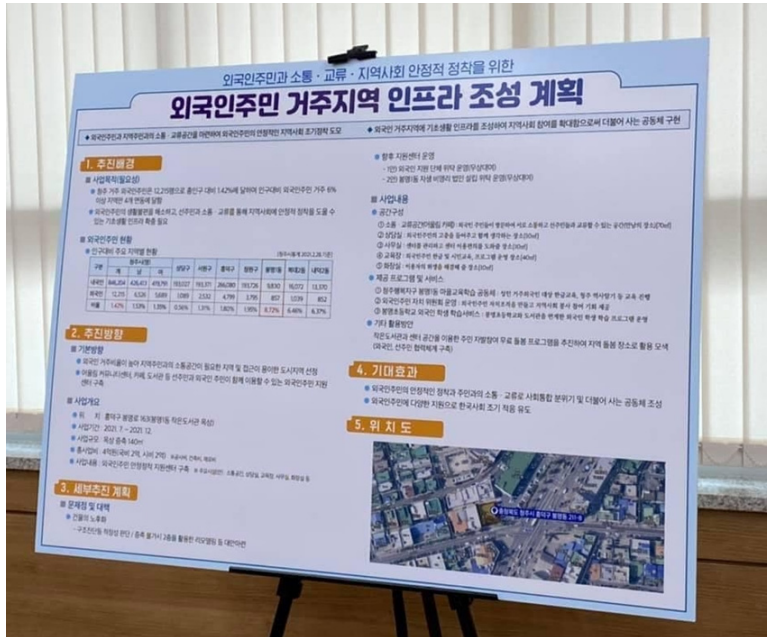


그림 9. 봉명동 일대의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계획(사진 제공 : 유영경)

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도시 공간 내에서 외국인의 거주 분리가 다른 사회집단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상호 소통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이성호, 2021). 청주시의 경우 객관적 지표에서는 외국인의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현재 외국인의 집단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공공 리모델링 사업 및 거주지 특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축제 행사 또는 다문화거리 지정 사업 위주의 특화 사업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 가운데 외국인들의 거주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지역 자체를 특정한 외국인 거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일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주민들도 있다. 특히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 도시 재생 뉴딜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민 교류 및 외국인 자치와 문화, 교육 활동 공간의 마련 등의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9). 한편 중소 도시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

비스업과 같은 생활 서비스의 지원 역시 필요하며, 나아가 해당 국가의 영사 업무 지원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전체로 본다면 종합적 행정과 노무, 그리고 영사 서비스 센터와 같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각 문화와 국적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카탈 문자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러시아 및 CIS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집단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국가별로 다른 사회 체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정책은 외국인이나 다문화 집단을 동일한 문화를 지닌 하나의 집단으로 고려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는 면이 있다. 물론 이는 현장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2020년 청주시 외국인 종교 집단 내에서 감염이 발생하였을 당시 역학 조사 및 방역 조치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데 특정 언어 통역 인력이 부족하여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 단체 및 종교 집단과의 소통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였다는 비판도 있었다(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자). 해당 문제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유학생의 도

움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이후 청주시의 방역 정책의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5).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게 되고, 국적이 동일하면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입장이 동일하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이들 간에도 서로 다른 종교 집단이 이질적으로 존재하며, 어떤 경우 동일한 종교 집단의 영향이 국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영민 · 김수정, 2017).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정책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제반 정책은 자민족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외국인 집단을 동화시키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영민 · 김수정, 2017). 기존의 다문화 교육은 동화와 적응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기반이나 경험 등은 무시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효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난다. 예컨대 외국인 가족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또래 집단과 어울리고 한국 사회에 쉽게 동화되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인 환경이나 배경에 무지하거나 편견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소외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들은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현지에서 교육받은 교육과정과의 불일치 문제로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주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예비 학교 교육과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자체 또는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만 홍보와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원래 태어난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의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중 언어의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이러한 맥락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출신 국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정착한다면, 이들에게 한국 이외의 다른 사회에 대한 교육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엄마 바로 알기 수준으로 그 의미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다시 정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 교육되어야 하며, 언어적 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지적한 외국인 집단의 구체적인

특성의 파악과 그에 대한 정책 마련의 부재에 기인하기도 한다. 청주시의 경우 인근 대학의 해당 어문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활동 등이 이뤄지고는 있으나(국제뉴스, 2021년 4월 5일자), 보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과서 및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다른 나라 사회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학교 정규 교육 과정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관련 심화 과정, 고교선택제 관련 과목 등을 통한 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편 지역 사회에 대한 교육 역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지역 등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지역 사회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제한된다. 이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지역 이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지역사를 소개하는 수준의 애향심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지역 이해 교육은 외국인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지역 거점의 외국인 지원 센터 구축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는 특정 과목에의 집중 및 통합적 접근에 대한 견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과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는데(윤태영 · 이은희, 2011), 통합 교육의 경우 모두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닌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개별·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조태준 · 송민혜, 2020). 이에 따라 외국인 학생 거주 지역의 거점별 지원센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다문화 교육 코디네이터가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 내외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램을 연계하고 알선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의 이주자 출신으로서 한국어와 해당국 언어에 능통하고 특정 분야의 교육까지 가능한 이중 언어 지원 교사, 관련 행정 절차 등에 능숙한 다문화 교육 교무행정과 같은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기관 설립 수준의 인력과 공간 확보 문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다는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확산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거점별 지원 센터는 개별·학교별로 나눠진 역할과 책임을 일관성 있게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조태준·송민혜, 2020). 이 이외에도 학교 입학 이전에 예비학교 기능은 물론 일반 주민도 외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의 상호 교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교육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마련 이외에도 중요한 사항은 상호 이해를 위한 콘텐츠의 개발이다. 외국인 집중 지역에서 이뤄지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태준·송민혜, 2020).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의 개발은 광역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인 학교 교육과정-지역사회 외국인의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이중 언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원 양성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관련 자격을 부여하고 활동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과 같은 정부의 공식적인 전문가 양성 제도는 개선점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는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

동하는 교원은 아니나, 소위 사회통합과정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이들의 교육 과정은 이민정책, 이민법, 다문화 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사회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현장 실습 등으로 이루어지며, 선택과목은 아시아 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의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 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 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론, 이중 언어 교육론, 다문화 교육 현장 사례 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등으로 구성된다(박종수, 2017). 현재의 외국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현장의 공식적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다문화 인증제 또는 단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어문계열 학과의 경우 자원 봉사 차원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사양성기관의 외국인 및 다문화 활동방안으로는 다양한 상호 이해 과목을 대학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개설하거나 특강 형태로 제공하고, 예비 교사들이 이주민센터, 이주아동 청소년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거나, 특정 시설이나 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것 등이 있다. 실제 대구 경북지역 사범대생 57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양성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의 경우, 상호 존중이나 다양성에의 대응,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생 지도, 협업 지도 등에서 보다 더 큰 역량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최진선, 2016). 다만 이 결과에 따르면 대학 교육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응답이 13.8%(약간 포함되어 있다까지 포함)에 불과하므로 관련 내용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초·중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이주민 집단이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인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교육 접근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김진희, 2019). 이들의 대부분은 자국의 공교육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 자신의 국가에서 학습한 내용이 완전히 배제된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은 이주자를 위한 사회 적응 교육, 기존 국민들의 문화 이해 교육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 대상 교육과 마찬가지로 소위 동화

위주의 교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교양 강좌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어, 향후에는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교육이 제공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내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 갈등과 관련된 토론 등을 포함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희, 2019). 더욱이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 정원 부여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II. 결론

우리나라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외국인의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이들은 국적별, 체류 자격별로도 상당한 분포 지역 차이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의 외국인 인구 특성을 전국과 비교하고 각 시군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흔히 외국인의 대표적 집단으로 인식되는 한국계 중국인이나 중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베트남, 구소련 국가 및 인접 국가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시군별 분포에서도 청주, 음성, 진천 등 산업 단지가 입지하여 노동력의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청장년층의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자로 인해 그 동반 가족인 노령 인구의 유입이 나타나고 있으며, 취학 연령에 속하는 아동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체류자격이나 성별, 연령별 구조에서 각 구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 동과 면에 따라 외국인 인구의 비율과 체류 자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결혼 이민을 제외한 다른 체류 자격에 속하는 경우 이러한 도시 내 집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주거비용의 절감을 위한 입지의 선택이 나타나며, 저가의 주거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

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과의 인접하거나 유리한 교통 조건 역시 이들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교통 조건이 유리하면서 쇠락한 주택가나 오래된 빌라촌이 이들 외국인들의 집중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이나 도시 재생과 같은 구도심의 활용 및 개발 사업에서 외국인 집중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주민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외국인의 지역적인 집중은 지역 단위, 특히 동 단위의 행정 수준에서 적극적인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외국인 지원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중 거주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둘 사이의 유기적인 연동, 지역사회 및 고등 교육 기관과의 연계 문제는 체계적인 지역 사회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측면에서도 외국인 및 다문화 교육이 지역 사회 활동 등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 이해 및 다문화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 및 외국인 사회의 자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민주적인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사회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기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외국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등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 및 지역 활성화 측면의 접근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보라, 2016, “문자 체계 변화에 따른 우즈베키스탄의 언어 문화적 특성” *슬라브학보*, 31(3), 47-72.
- 김수진·양승우, 2017, “서울시 중구 중앙아시아거리 형성 과정 연구” *서울학연구*, 68, 35-70.
- 김진희, 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127-153.
- 김태훈·배성훈, 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3, 259-296.

- 노지현·구동희, 2016, “김해시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적 분포와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0(4), 411-423.
- 박규택, 2018, “부산광역시 외국인의 공간변화 그리고 산업 종사자와 관계, 2000~2015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350-369.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박종수, 2017,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6(1), 145-165.
- 방성훈·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9(2), 396-68.
- 배주현·김감영, 2019, “지방 중소도시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과정: 영천시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11-126.
- 손승호, 2016,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인구구성변화와 주거 공간의 재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57-70.
- 유원수, 2016, “몽골국의 문자 정책 소고 - 몽골어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 몽골학, 47, 77-102.
- 윤태영·이은희, 2011, “다문화 교육과정에 관한 대학생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273-284.
- 예카테리나 샤프레이·이건원·김세용, 2015, “A study on multiethnic community area in Gwanghui dong area, Jung-gu, Seoul with planning and design suggestions,”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6(1), 147-164.
- 이선화, 2008,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123-166.
- 이성호, 2021,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사회집단별 거주지 분포 특성과 변화 양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61-76.
- 이호상·손승호, 2018, “인천시 외국인 이주자 거주공간의 영역화-일본 국적과 중국 국적을 사례로,” 인천학연구, 1(28), 45-82.
- 이영민·김수정, 2017, “인천시 외국인 이주자 분포특성과 다문화 로컬리티에 관한 예비적 연구-출신 국가와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197-238.
- 이영민·이용균·이현옥,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103-116.
- 이영민·이종희, 2013, “이주자의 민족경제 실천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서울 동대문 몽골타운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19-36.
- 이용균·이현옥, 2012,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59-74.
- 이지원·김혜진, 2017, “수도권 외국인의 출신국적에 따른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 국토지리학회지, 51(2), 123-133.
- 이정현·정수열, 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2), 304-318.
- 이혜경, 2012,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주거·소비·여가공간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133-173.
- 정수열·이정현, 2014, “이주 경로를 통해 살펴본 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과정,” 국토지리학회지, 48(1), 93-107.
- 조태준·송민혜, 202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서남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3), 73-100.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최진선, 2016, “예비중등교사의 상호이해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분석,” 다문화와 인간, 5(2), 77-114.
- 한정우, 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a, 등록외국인 읍면동별 연령별 현황 2020.6.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b,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0.6.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0c,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20.6.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1, 등록외국인 읍면동별 연령별 현황 2021.6.
- 통계청, <http://www.kosis.go.kr>
- 국제뉴스, 2021년 4월 5일자, “청주 봉명초, 러시아어권 학생 적응 지원 충북대와 협약,” <http://www.guk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152>

바이러시아, 2019년 1월 24일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러시아 CIS 타운’ 형성 중” <http://www.buyrussia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56>

연합뉴스, 2020년 8월 6일자, “‘알고도 방치’...허술하기 짝없는 청주시 이슬람 집회 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081700064?input=1179m>

충북인뉴스, 2019년 1월 23일자, “러시아·우즈베크 사람들, 청주시 봉명 1동으로 몰린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11>

CJB, 2021년 5월 27일자, “생활지도 어떻게...번역해 교육”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210527016&PRO_CODE=4

교신 : 김종연,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terraic@cbnu.ac.kr)

Correspondence : Jong Yeon Kim, 28644,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terraic@cbnu.ac.kr)

투고접수일: 2021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21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0일